



네일, 내일도 '동행'

KIA 타이거즈가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왕조 재건'을 위한 마운드의 큰 퍼즐을 완성했다.

KIA, 총 180만달러에 재계약
보장금액 55만→160만 '경총'
'왕조 재건' 마운드 큰 퍼즐 완성

'에이스' 제임스 네일(James Naile·31)이 "한 번 더"를 외치면서 KIA 타이거즈와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KIA가 27일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40만, 연봉 120만, 옵션 20만 달러)에 계약을 맺고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올 시즌 통합 우승을 이룬 뒤 '왕조 재건'을 외쳐 왔던 KIA입장에서는 2025시즌을 위한 마운드 큰 퍼즐을 맞추게 됐다.

2024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뛰어들 네일은 26경기에서 나와 149.1이닝을 소화하면서 12승을 책임졌다. 138개의 탈삼진도 뽑아낸 그는 2.53의 평균자책점을 찍으면서 이 부문 1위에 올라 KBO리그 시상식에서 이름이 불렸다.

팀의 정규시즌 1위를 이끈 네일은 한국시리즈 우승 주역이기도 하다.

한국시리즈 1차전 선발로 나와 삼성을 상대로 5이닝 1실점 호투를 선보인 그는 4차전 선발로 다시 마운드에 올라 5.2이닝 2실점의 승리투수가 되면서 'V12'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정규시즌 성적과 한국시리즈 호투가 큰 부상을 이겨내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일은 지난 8월 24일 NC와의 원정경기에서 타구에 턱을 강타당하면서 턱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한국시리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네일은 투혼의 재활을 하면서 결국 마운드로 돌아왔다.

그는 팬들의 간절한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9월 6일 키움과의 홈경기에서 '깜짝 시구자'로 등장해 감동을 선물하기도 했다.

성적은 물론 팀워크 면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네일의 거취는 우승 여운을 이어가기 위한 KIA의 큰 관심사였다.

특급 스위퍼를 앞세워 KBO리그를 압도하면서 빅리그의 관심을 받았고,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네일이 직접 2025시즌 변화 가능성도 언급했던 만큼 네일과의 작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부상 악재 속에서 팬들과 구단 그리고 동료들이 보여준 응원과 헌신, 여기에 '우승 주역'에 맞는 대우가 네일의 마음을 움직였다.

올 시즌 네일은 계약금 20만달러, 연봉 35만달러, 옵션 15만달러, 이적료 25만달러 등 총액 95만달러에 KIA 선수가 됐다.

첫 해 보장금액이 55만달러였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KIA는 계약금 40만, 연봉 120만달러 등 160만달러를 보장금액으로 약속했다. KIA는 2.9배 상승한 보장금액을 통해 에이스에 맞는 대우를 해

주면서 마운드 한 축을 지켰다.

'에이스'를 품에 안은 KIA는 선발진 줄부상 위기 속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김도현과 황동하의 경쟁구도로 2025시즌에도 순위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6월 이후 이의리의 복귀까지 준비되는 만큼 KIA는 '왕조 재건'을 위한 구상에 큰 힘을 얻게

됐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번 더 해보자, KIA 타이거즈 파이팅"이라는 글을 올리며 재계약 소감을 밝힌 네일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긴 시간 재활을 하는 동안 구단의 지원과 나에게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마운드에 올라 투구할 수 있었

다. 응원해 주신 팬들에게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에 KIA 타이거즈와 동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좋은 제안을 준 구단에 감사하고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어 내년에도 동료들과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10명 '골든글러브' 도전

박찬호·최형우·김선빈·김도영 등 후보에...KBO 내달 13일 시상식

'2024 챔피언' KIA 타이거즈에서 10명의 선수가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KBO가 27일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2024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발표했다.

KIA에서는 '에이스' 네일과 '세이브왕' 정해영과 함께 양현종·전상현이 투수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시리즈 MVP' 김선빈(2루수), '정규시즌 MVP' 김도영(3루수), '한국시리즈 5차전 MVP'인 박찬호(유격수)는 내야에서 골든글러브를 노린다. 또 소크라테스와 최원준이 외야수 후보가 됐고, '말형' 최형우는 지명타자 자리에서 수상에 도전한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에 따라 투수는 규정

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가 후보가 됐다.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X5이닝) 이상 수비를 소화한 포수와 야수도 후보 명단에 포함됐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후보가 됐다.

이와 함께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도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타이를 홀더의 경우 수비이닝 기준을 충족한 포지션이 없을 경우,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에서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에서 후보로 등

록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투수 부문 26명, 포수 부문 7명, 1루수 부문 5명, 2루수 부문 6명, 3루수 부문 8명, 유격수 부문 7명, 외야수 부문 19명, 지명타자 부문 3명 등 총 81명이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통합 우승을 이룬 KIA와 정규시즌 3위를 차지한 LG가 가장 많은 10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이어 KT, SSG, 롯데에서 9명이 후보가 됐고 NC와 키움은 8명이 수상을 노린다. 이어 삼성 7명, 두산 6명, 한화 5명 순이다.

골든글러브는 올 시즌 KBO리그를 담당할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가려진다. 27일 시작될 투표는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까지 실시된다.

'황금장갑'을 품은 2024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2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화려한 대관식' 윤이나 "이젠 LPGA다"

KLPGA 대상·상금왕·최저타수상...내달 6일 LPGA 켈리파인스쿨 응시



윤이나(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상 시상식에서 4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다.

윤이나는 2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KLPGA 대상 시상식에서 위메이드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일찌 개인 타이틀 3개를 받았다.

윤이나는 올해 우승은 한 번뿐이지만 12억1141만5715원으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었고 평균타수 70.05타로 1위에 올랐다.

대회 때마다 톱10에 입상해야 받는 대상 포인트도 가장 많이 쌓았다.

KLPGA 투어에서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을 휩쓰는 주요 개인 타이틀 3관왕은 강수연, 신지애, 서희경, 이보미, 김효주, 전인지, 이정은, 최혜진, 이예원에 이어 윤이나가 10번째다.

윤이나는 올해 KLPGA 투어에서 우승한 선수한테 주는 특별상까지 포함해 이날 4번이나 시상대에 올랐다.

지난 2021년 드림투어 상금왕 자격으로 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던 윤이나는 KLPGA 투어 신인이던 2022년 오구 플레이 징계를 받아 2022년과 작년에는 대상 시상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3년 만에 화려하게 대상 시상식에 복귀한 윤이나

는 "3년 전에는 내가 여기 끼여도 되나 싶었는데 올해는 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오를 수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최저타수상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6일부터 시작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켈리파인스쿨에 응시하는 윤이나는 28일 미국으로 출발해 일찌감치 시차 적응과 코스 답사, 개인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윤이나는 "더 큰 무대에 도전하고 싶어서 미국 진출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가서 잘 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윤현조는 평생 기회가 한 번뿐인 신인상을 받았다.

이번 시즌에 나란히 3승씩을 수확한 마다솜, 박지영, 박현경, 배소현, 이예원은 공동 다승왕에 올라 한꺼번에 상을 받았다.

배소현은 골프 기자들이 선정하는 기량 발전상도 받았다.

송은아는 드림투어 상금왕 트로피를 받았고, 최혜정은 챔피언스투어 상금왕에 올랐다.

박결, 박지영, 박재운, 지한솔, 최은우는 10년 연속 KLPGA 투어에서 활동하며 들어갈 수 있는 K-10 클럽에 가입했다.

온라인 팬투표로 뽑는 인기상은 황유민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구례군청 엄하진 13번째 장사 등극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국화장사

구례군청 발달골씨름단 엄하진(사진)이 한 해를 결산하는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통산 13번째 국화장사에 등극했다.

구례군청 엄하진은 지난 25-26일 영암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천하장사 씨름대축제'에서 국화급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열세 번째 장사에 올랐다.

엄하진은 국화급 8강 경기에서 발다리와 잡채기로 김주연(화성시청)을 가별게 눌렀다.

그는 이어진 4강에서 한 식구이자 최근 안산김홍도·추석대회에서 국화급 신승강자로 오른 이세미(구례군청) 역시 발다리와 잡채기로 2-0승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엄하진은 결승에서 맞붙은 정수영(안산시청)을 상대로 첫판 경고패로 1점을 챙겼고, 두 번째 판 엉덩배지기로 2-0완승을 거두며 당당히 왕좌에 올랐다.

엄하진은 지난 2023년 설날장사씨름대회 이후 1년 10개월여 만에 장사 타이틀을 되찾았다.

그는 "오랜만에 얻은 장사 타이틀이라 아직도 얼떨떨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시합에만 몰두한 순간들이 모여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3년 9월 부상을 당한 엄하진의 복귀 후 6번째 대회다.



그는 "복귀 후 시합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하고 많이 방황했다. 너무 감사한 결과지만 만족하기엔 이르고 생각한다. 동계훈련 열심히 소화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더 단단해지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승환 구례반달골씨름단 감독은 "하진이 부상 복귀 후 다시 정상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할 정도로 훈련하고, 풀리지 않는 경기로 많이 힘들어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해낸 하진이 대견스럽고 올해를 이겨낸 우리 반달골씨름단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구례군청 선재림은 매화급 2위, 이세미와 최희화는 국화급·무궁화급에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